

청소년非行 67%가 집단범죄

1988. 12. 21

「중국의 인구통기」. 집단
범죄와 집단화하는 10대
의 폭력 비행을 지칭한 신
조어다. 가족간 결속력 약
화 및 가치관의 혼란으로
탈선과 비행의 현상이 파
져드는 청소년들의 폭력원
인과 지도대책을 제시한
책자가 최근 서울시교위에
서 발행돼 관심을 끈다.

학생들의 근원적 원인
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제
시한 이 지침서에서 「우리
나라의 학생폭력에 관해
서울한한양대 沈英姬교수
(사회학)는 「단속한 산업화
와 사회변동 속에서 나타
난 가치관의 혼란으로 학
생폭력이 점점 심각해져가
고 있다」고 분석했다.

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
는 70년 3만8천8백96명
에서 86년에는 10만6천3
백55명으로 16년간 2·7
배 증가했으며 86년의 경
우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

서울市敎委 지도지침서 발행

이 43·5%나 돼 재산범
이 69·3%인 성인들의
범죄와 대조를 보인다.
요즘 청소년 비행의 특
성은 폭력화와 집단화경향
으로 압축되는데 폭력범의
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강
도(49·9%)와 강간(43·2
%)의 절반가량이 10대에
의해 발생했으며 청소년비
행의 66·6%가 집단비행인
것으로 밝혀졌다.
沈교수는 「중고교생들중
나이가 많을수록, 가족의
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
록, 서울지역자녀수록 폭력
비행은 저지르는 학생이
많은데 최근에는 흉문제
화각제 본등의 악물사용
도 비행과 직결되는 경향
을 보인다」고 덧붙였다.
이 지침서는 청소년문제
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밀
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
적하고 있다. 즉 급격한 경
제선장에 따른 경제적 성



갑수록 흉포화 집단화하는 청소년의 폭
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
정의 기능회복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
필요하다.

강도 강간 절반 10대가 저질러 예방위해 「사회의 학교화」 필요

취업면도의 가치관 △가치
규범의 혼란 △청소년기의
조숙화 및 연장화 △중성
소년의 도시화의 이등 △
역사적 절점이다를 세대간
의 갈등 △패스킴에 의한
대중문화의 보급 등이 청소년
의 가치관과 인격형성에
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
것이다.

홍의대 李載昌교수(심리
학)는 「오늘날의 학교는 학
생폭력을 유발하는 모순이
되고 있는 셈」이라고 지적하
면서 △시선달 교육관 △
인사위주 교육 △비교육적
비인간적 학교환경 △교사
의 자기지하 △생활지도활
동의 미흡 △대화기회의 결
여 등 요인이 청소년들의
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
있다고 밝혔다.

李교수는 「청소년의 폭
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
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대
처가 요구된다」면서 우선
가정에서는 △가정의 교육
기능을 회복하고 △부모가
근접적 모범적 행을 보여
주며 △과잉보호 및 과잉기
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
주장했다.

또 학교에서는 △학교교
육의 정상화 △교사의 자질
향상과 교권확립 △특별활동
동작화 등의 조치를 서둘러
야 하고 사회각계에서 청소년
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
피는 「사회의 학교화」가
필요하다고 말했다.

〈鄭星姬기자〉

폭력이 늘다

아기와
중이과
특수이과
과학
수업
부제
생물
과학
과학
과학
과학
과학